

향가 《안민가》의 독해에서 제기되는 문제

김영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48페이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가운데서 향가유산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향가유산은 우리 문학사의 주요연구대상으로 될뿐아니라 언어사의 연구를 위해서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향가유산으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14수와 《균여전》에 수록된 11수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안민가》는 《삼국유사》에 소개되어있는 그중의 한수이다.

《삼국유사》 권2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항에 의하면 경덕왕이 중인 충담(忠談)이 기과랑(耆婆郎)을 찬양해서 향가를 지은데 대해서 말하고는 그에게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편히 살도록 다스리는 노래를 지어달라.》고 하자 충담이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안민가》를 지어바쳤다고 한다.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此盼殮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遭只 於冬是去於丁 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古如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안민가》와 관련하여 지난 시기 적지 않은 학자들(량주동, 홍기문, 정렬모, 류렬)이 그 독해를 시도하였는데 그 정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고가연구》(량주동)에 반영된 《안민가》에 대한 독해

君은 어비여
臣은 득스살 어시여
民은 얼흔아히고 ㅎ살디
民이 득술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 짜홀 브리곡 어디 갈더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ㅎ닐든
나라악 太平ㅎ니잇다

《향가해석》(홍기문)에 반영된 《안민가》에 대한 독해

君은 아비아
臣은 ㄷ스살 어시아
民은 어리흔 아히고 ㅎ살디
民이 ㄷ스리 알고다
구릿 대홀 나히 고이숨 갓나히
이홀 머거디 다스라라
이 싸홀 브리고디 어드리 가더 홀디
나라아디 디니디 알고다
아야 君다비 臣다히 民은 다비 ㅎ놀든
나라아디 태평 ㅎ니밋다

《향가연구》(정렬모)에 반영된 《안민가》에 대한 독해

엍은 압이라
원은 ㄷ으살 어마시라
아르문 열흔 아히고 ㅎ살디
아르미 ㄷ올디고ㄷ
구리스대홀 사로기스리
문사리홀 소노기 다스리라
이 싸홀 브리고 기 어디 가오자 홀디
나라악 가지로 마디고ㄷ
아야 엍 처로 원 답기
아름 슬롯 ㅎ놀든
나라악 태평 한 음서

《향가연구》(류렬)에 반영된 《안민가》에 대한 독해

군은 아비라
신은 다스실 어시라
민은 어리흔 아가고 ㅎ실디
민이 다솔 알고다
구리시다홀 나히고히숨 가시나히
이홀 머거기 다스라라
이 수다홀 바리고기 어드리 갈더 홀디
나라기 디니기 알고다
아으 군다비 신다기 민은 다비 ㅎ놀든
나라 태평 ㅎ이시다

같은 내용에 대하여 책들마다 독해에서 일정하게 다른것은 향찰식표기에 대한 리해의 차이와 관련되어있으며 중요하게는 당시 언어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추정하는가와 직접 관련되어있다.

여기서는 《안민가》에 대한 선행학자들의 독해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독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안민가》의 개별적어휘, 문장에 대한 선행학자들의 독해내용을 비교분석한다.

君隱父也

《君》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자말 《군》으로 읽었으나 유독 《항가연구》(정렬모)에서만은 《엽》의 표기로 보고있다. 그 근거로 《후주서(後周書)》에 있는 《百濟王號於羅瑕》라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君》은 《어벌하》의 표기로서 남성의 왕을 가리키는 말 《엽》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엽=君→압=父》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君》은 《엽》으로 읽을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君隱父也》는 《엽은 압이라》로 독해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君》을 《엽》으로 읽는것은 억지스러운 감이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君隱父也》의 《君》을 한자말의 표기로 보고 이 구절을 《君은 아버지(어비)야(여, 라)》로 읽고 있다.

臣隱愛賜尸母史也

《臣隱》에 대해서도 《항가연구》(정렬모)에서는 《원은 ㄷㅇ 살 어마시라》로 읽고있다. 그 근거로는 《臣》을 일본말에서 《오미》로 읽고 《朝臣》을 《아소미》라고 하는데 일본사람들은 《아소미》를 조선말 《아주미》에서 온것이라고 말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오미》는 《어미》와, 《어미》는 《웁》과 통하는것 같으며 《웁》은 바로 《원》으로 변한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론거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더우기 그 당시에 겹모음 《거》의 존재를 인정하겠는가 하는것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臣隱》을 《臣은》으로 읽고있으며 《臣》을 《君》이나 마찬가지로 한자말로 보고있다.

《愛賜尸母史也》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류사하게 독해하고있다.

ㄷㅇ 살 어시여(《조선고가연구》)

ㄷㅇ 살 어시야(《항가해석》)

다ㅇ 살 어시라(《항가연구》)(류렬)

ㄷㅇ 살 어마시라(《항가연구》)(정렬모)

다만 《항가연구》(류렬)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아직 《△》가 존재하지 않았다는데로부터 그것을 《ㅅ》으로 대응시키고있는것이 다를뿐이다.

그리하여 이 구절은 《자애로운 어미여》의 뜻으로 된다.

그런데 《항가연구》(정렬모)에서는 《ㄷㅇ 살 어마시라》로 독해하여 《母史也》를 《어마시라》로 달리 읽고있다. 그 근거로 어머니를 《어마시》라고 하는 말이 방언에 존재하며 《史》가 바로 《시》의 표기로 된다는것이다.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을 한자말의 표기로 보고있으나 《항가연구》(정렬모)에서는 《아ㄹ미》로 읽고있는데 그 근거로는 《정속언해》에 나오는 구절인 《如此之民如

無根之本》을 《이런 아릅튼 불휘 없은 남기며》로 번역하고있다면서 《民》을 《아릅》으로 대응시키고있는것을 그 근거로 삼고있다.

《狂尸恨》에 대해서는 《얼ㄹ》과 《어리ㄹ》의 두가지 독해가 있는데 문제는 《狂尸》를 《얼 / 어리》의 어느것으로 보겠는가 하는데서 오는 차이라고 할수 있다. 당시의 언어적특징으로 보아 《얼》보다는 《어리》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사실상 《어리》는 《어리둥절하다》, 《어리석다》의 경우와 같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쓰이고있는 말이다.

《阿孩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히고》로 읽고있는데 《향가연구》(류렬)에서는 《아가고》로 읽고있다. 그 근거로는 《계림류사》에서 《父呼其子曰ㄱ加》라고 하였으니 《阿孩》는 《아가》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한자음으로 보아 《孩》를 《가》의 음역으로 보는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볼수 있다.

《爲賜尸知》에 대해서는 대체로 《ㅎ살디》로 읽는데서 다 일치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구절은 《民은 어리흔 아히고 ㅎ살디》의 표기로서 현대말로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할지》의 뜻으로 된다고 볼수 있다.

民是愛尸知古如

이 구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자마다 류사하게 독해하고있다.

民이 ㄷ을 알고다(《조선고가연구》)

民이 ㄷ스리 알고다(《향가해석》)

民이 다을 알고다(《향가연구》)(류렬)

차이가 있다면 이 시기에 《△》의 존재여부에 따르는 견해상차이, 보다 중요하게는 《愛》에 대한 우리 말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되어있다.

15세기 국문문헌에서 《愛》에 해당하는 우리 말은 《돛다 / ㄷ스며, ㄷ스딕》로 나오고있다.

- 너희 무리 피며 돛논 ㅁ스미 重호야(《남명집》 하 5)
- 저호딕 ㄷ스며 ㄷ스딕 그 윈 이를 알며(《내훈》 1권 7장)

《향가연구》(류렬)에서는 《안민가》창작당시에 《△》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종의 약화현상도 없었다는것을 전제로 하여 독해하고있다.

결국 《民是愛尸知古如》라는 구절은 대체로 《백성이야말로 사랑하는이라고 압니다.》의 뜻이라고 할수 있다.

《향가연구》(정렬모)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아릅미 ㄷ을디고ㄷ》로 독해하고있다.

우선 《民是》를 《아릅미》의 표기로 보고있는데 《民》을 《아릅》의 표기로 보고있는데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愛尸知古如》를 《ㄷ을디고ㄷ》의 표기로 보면서 현대어로 《사랑스럽다》의 감탄적표현이라고 하고있다. 즉 《ㄷ을》은 명사이고 《디다》는 접미사로서 그 결합인 《ㄷ을디다》는 형용사라고 하면서 현대어로 《틀지다, 멋지다, 되알지다》와 같은 단어조성법에 의한 표현이라는것이다. 그리고 《古如》를 함경도방언의 토 《오다》와 같은것(《가오다, 하오다》 등)이라고 하고있다. 그런데 맺음토에 해당하는것을 《ㄷ》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없다.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窟理叱》은 《조선고가연구》에서 《구물ㅅ》의 표기로 보고있다. 그것은 《窟》을 《구무》의 의역으로, 《理》를 《ㄹ》의 표기로, 《叱》을 《ㅅ》의 표기로 본것이다. 그리고 《大盼》는 《다히》를 음역한것으로 보고있다. 그리하여 《窟理叱大盼》는 《구물ㅅ다히》의 표기로서 《구물대면서》의 뜻을 가진 《부사형》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향가해석》에서는 《窟理叱》을 《구리ㅅ》의 표기라고 하였다. 즉 리두에서 《松羅》를 《소라기》, 《夜昧》를 《바미》라고 하는 등 한 음을 두곳에서 거듭 표기하는것처럼 《구리》를 《窟理》로 표기한것은 이상할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은 《구르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된것으로서 뒤에 오는 《叱》은 《ㅅ》의 표기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大盼》은 《대홀》의 표기로 되는것만큼 《窟理叱大盼》은 《구리ㅅ대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구리ㅅ대》는 중부방언의 《굴대》에 해당하는 말로서 불교의 룬회(輪廻)를 비유해서 쓰고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窟理叱大盼》을 《구리ㅅ대홀》의 표기로 보는데서는 《향가연구》(정렬모)에서도 같다.

한편 《향가연구》(류렬)에서는 《窟理叱大》를 《굴다》의 옛 형태인 《구리시다》에 대한 음역으로, 《盼》을 대격로 《홀》의 표기로 보면서 《구리시다홀》로 읽고있다.

《生以支所音》에 대해서 《조선고가연구》에서는 《살손》의 표기로 보고있다. 즉 《生》을 《살》의 의역으로, 《以》는 《살》의 《ㄹ》을 거듭 표기한것으로, 《支》자는 허자로 보았던것이다. 결국 《生以支》의 석자를 《살》의 한 음절을 표기한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所音》의 《所》는 《소》의 표기이며 《音》은 원칙적으로 《ㅁ》의 표기로 되지만 《ㄴ》의 표기로도 될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살손》이라는 해석은 전체적으로 주관적이고 억지스럽다고 볼수 있다.

한편 《향가해석》에서는 《生以》를 《나히》의 표기로, 《支》는 뜻으로 읽어 《고이다》의 《고이》의 표기로 보며 《所音》은 그 음 그대로 《숨》으로 읽었다. 결국 《生以支所音》은 《나히 고이숨》의 표기로 보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가연구》(류렬)에서도 비슷하게 독해하고있다.

그리하여 《生以支所音》은 《나면서부터 고여주는것은》의 뜻으로 된다.

그런데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生以支》를 《사로기》로 읽으면서 《살리게》의 뜻이라고 하였으며 《所音》의 《所》는 《音》의 새김 《소리》의 첫소리를 표기한것으로서 그것은 현대어의 도움로 《스리》와 같은것이라고 하였다.

《物生》에 대하여 《조선고가연구》는 음독을 하면서 중세 후반기에는 《중생(衆生)》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중세 초반기에는 《物生》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이 말은 《人生》이라는 말보다도 좀더 넓은 의미인 불교적속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향가해석》에서는 《物生》이라는 한문성어는 도대체 존재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갓나히》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향가연구》(류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가시나히》로 읽고있다.

한편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物生》을 《물사리》로 보아야 중생의 뜻이 뚜렷해질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은 《구릿대홀 나히 고이숨 갓나히》로 읽을수 있는데 그것은 《룬회의 차축을 꺾고있는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된다고 할수 있다.

此昫殮惡支治良羅

《조선고가연구》에서는 이 구절을 《이홀 머기 다스라》로 읽고있다. 이 경우에 《머기》는 부사형으로서 뒤에 오는 《다스라》를 수식하고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향가해석》에서는 《이홀 머거디 다스라라》로 읽고있으며 《이들을 먹여서 편안히 하여라》의 뜻으로 보고있다. 《향가연구》(류렬)에서는 《이홀 머거기 다스라라》로 읽으면서 《이들을 먹을수 있게 다스려라》의 뜻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머거디》와 《머거기》의 차이인데 그것은 그 의미기능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머거디》는 접속술어로 본것이며 《머거기》는 상황어로 본것이다.

그러나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그 앞구절에서 《物生》을 떼여내고 이 구절과 합치여 《物生此昫殮惡支治良羅》를 《물사리홀 소노기 다스리라》로 읽고있는데 《殮惡支》를 《머거디/머거기》의 표기로 보는것이 아니라 《소노기》의 표기로 보면서 《법있게, 질서있게》의 의미로 설명하고있다.

그리하여 그 뜻은 《억만창생을 법대로 다스리라》로 된다는것이다.

此地昫捨遺只 於冬是去於丁 爲尸知

《조선고가연구》에서는 《이 홀 브리곡 어디 갈더 홀디》로 읽고있다.

그런데 《향가해석》에서는 《이 싸홀 브리고디 어드리 가더 홀디》로 읽고있다.

한편 《향가연구》(류렬)에서는 《이 수다홀 바리고기 어드리 갈더 홀디》로 읽고있다.

그러나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이 싸홀 브리고 기 어디 가오자 홀디》로 읽고있다.

결국 선행학자들은 다 비슷한 독해를 하고있다고 할수 있는데 오직 《향가연구》(류렬)에서만은 《안민가》창작당시의 언어현상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싸》를 《수다》로 읽고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地》를 《다》라고 한례는 있지만 굳이 《수다》라고 한것은 문헌자료에 없는것이 고려되지 않은것 같다.

國惡支持以支知古如

《조선고가연구》에서는 이 구절에 대하여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로 읽었다.

그러나 《향가해석》에서는 《나라아디 디니디 알고다》로, 《향가연구》(류렬)에서는 《나라기 디니기 알고다》로 읽고있다.

결국 우의 세 책들에서 《知古如》의 독해는 《알고다》로서 서로 일치하며 《國》도 다같이 《나라》의 표기로 보고있는데서 서로 같다고 할수 있으나 《惡支》에 대한 독해만은 서로 다르다.

《조선고가연구》에서는 《惡》을 《악》의 표기로 보면서 《內》의 뜻이라고 주장하고있다.

- 안악, 안악네(內, 內人)
- 쏘악(庭內)

이처럼 《악》은 《內》의 뜻인데 그것을 《惡》으로 표기하였다는것이다. 그리고 《支》는 《악》의 끝소리를 다시 첨가하여 표기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향가해석》에서는 《惡支》를 《戈只》와 같은 토로 생각할수 있다고 하면서 《國惡支》를 《나라로서, 나라라도》 등의 의미로 볼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향가연구》(류렬)에서는 《國惡支》를 옛날말 《나라히》의 옛 형태인 《나라기》에 대한 뜻-소리 옮김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國惡支》에서 《支》를 떼어내어 《國惡》을 《나라악》으로 읽으면서 《惡》이 곧 주격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 근거로는 리두에서 《亦》, 《戈只》가 주격으로 사용된것만큼 《惡》도 주격표시로 쓰일수 있다는것이다.

한편 《持以支》에 대한 독해에서 《조선고가연구》에서는 《持以》를 《디니》로 보고 《支》를 《디》의 음역으로 보면서 이러한 표현방식은 《기파랑가》에도 나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가해석》도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향가연구》(류렬)에서는 《持以支》는 《지니다》의 명사형의 옛날말인 《디니기》에 대한 뜻소리 옮김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문제는 옛날에 동사의 명사형이 어떠하였는가 하는것인데 옛 국문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 나리 저물시 나가디 슬흐야커늘(《삼강행실》 리씨부해)
-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악장가사》 서경별곡)

그렇다면 《알고다》의 객어로 되는 《持以支》는 《조선고가연구》나 《향가해석》에서 주장한것처럼 《디니디》로 읽는것이 옳다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國惡支》에서 《支》를 떼어내어 《持以》에 붙이여 《支持以》를 《가지로》의 표기로 보면서 《갈수록》의 뜻이라고 주장하고있다.

《知古如》는 《알고다》의 표기로 된다. 즉 《知古》의 《知》를 의역자로 보고 《古》를 음역자로 보는데서는 견해상 일치하고있다.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後句》는 향가에서 《後句, 落句, 後言, 隔句》 등으로, 일부 경우에는 《阿也, 阿耶, 阿邪, 阿邪也》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어느것이나 다 감탄사인 《아으, 아야》의 표기로 보인다.

《君如》에 대해서 《조선고가연구》에서는 《君다이》로 보았는데 《향가해석》에서는 《君다비》로 보았다. 그것은 《다이》가 《다비》에서 《뵤》가 탈락한 다음에 생긴 말인것만큼 후기적 현상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해석된다.

《향가연구》(류렬)에서는 《君如》에 대해서 《군다비》로 보고있는데 한결음 더 나아가서 《다비》의 옛 형태는 《다비》이니 《如》는 그 뜻옮김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君如》를 《업쳐로》로 읽으면서 《임금처럼》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臣多支》에 대해서 《조선고가연구》에서는 《臣다이》로 읽고있는데 《多》는 음역이며 《支》는 《이》를 나타내는것으로서 《多支》와 《如》는 동어이사(同語異寫)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향가해석》에서는 《多支》를 《如》와 같은것으로 본다면 《多支》는 《다비》란 음의 표기로 될수 없고 《다비》의 《비》는 《히》로도 변하였으니 《多支》는 《다히》란 말의 표기일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향가연구》(류렬)에서는 《臣多支》를 《臣다기》의 표기로 보면서 《신하답게》의 뜻이라고 하였으며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臣》을 혼독하고 《多支》를 음차한것으로 보면서 《원답기》의 표기로 보았다.

《多支》에 대해서 《如》의 뜻을 나타내는 《다이, 다히, 다기》 등으로 보는것은 당시의 어음현상에 대한 견해상차이로서 다 일리가 있는것이지만 그것을 《답기》의 표기로 보는것은 언어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것은 《如》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인 《답기》는 《다비> 다이》보다도 훨씬 후기적인 말로 되기때문이다.

《民隱如》에 대하여 《조선고가연구》에서는 《民다이》로 읽고있는데 《향가해석》에서는 《隱》을 무시할수 없다면 《民은 다비》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향가연구》(류렬)의 경우에는 《如》를 《다비》의 표기로 보았는데 이것은 력사적견지에서 옳은 독해라고 본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다비> 다비 > 다이》의 변화과정을 밟았기때문이다.

그러나 《향가연구》(정렬모)에서는 《民隱如》에 대하여 《民》을 혼독하여 《아름》으로, 《隱》을 혼독하여 새김 《숨다》의 《숨》을 표기한것으로, 《如》는 의미로 미루어 《돛》을 표기한것으로 보고있다. 그리하여 《民隱如》를 《아름 슬룻》으로 읽으면서 《백성이 아파하듯》의 뜻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독해이다.

* 《돛》과 《룻》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것이 유감이다.

《爲內尸等焉》에 대하여 《조선고가연구》에서는 《ᄃᆞᆫ ᄃᆞᆫ》으로 독해하였는데 그 근거는 《爲》를 혼독하여 《ᄃᆞᆫ》로 보고 《內》는 《ᄃᆞᆫ》를, 《尸》는 《ᄃᆞᆫ》을 그리고 《等焉》은 《ᄃᆞᆫ》으로 음독한데 근거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세 책들도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國惡太平恨音叱如

《조선고가연구》에서는 《나라악 太平ᄃᆞᆫ니잇다》로 읽으면서 《國惡》의 《國》은 《나라》의 혼독이며 《惡》은 《內》의 뜻인 《악》으로 보고 《太平》은 음독하고 《恨》은 《ᄃᆞᆫ》을, 《音》은 《이》, 《叱》은 《ᄃᆞᆫ》을 표기한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如》는 종결토인 《다》의 표기라는것이다.

《향가해석》에서는 《나라 아디 태평ᄃᆞᆫ니밋다》로 읽고있는데 그것은 《音》을 《ᄃᆞᆫ》에 해당시킨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본래의 음대로 《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향가연구》(류렬)에서는 《나라 태평ᄃᆞᆫ이시다》로 읽고있다. 《향가해석》에서는 《國惡》의 《惡》아래 《支》가 루락된것으로 보면서 《나라아디》로 보고있지만 《향가연구》(류렬)에서는 《國惡》을 《나라》에 대한 뜻-소리웁김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향가연구》(류렬)에서는 《音叱如》를 《이시다》의 소리-뜻웁김으로, 《有叱多》의 표기변종으로 보고 그 근거로 《音叱》이 《이시》에 대한 소리웁김으로 쓰인것은 《헌화가》의 《獻乎理音如》에 있는 《音如》에서 이미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音叱》을 《이시》의 표기로 본 근거로 《音如》를 드는것은 억지주장이라는 감이 있다. 그것은 《叱》과 《如》는 독해를 동일하게 할수 없기때문이다.

선행한 독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君, 臣, 民》과 《物生》이 그 당시에 널리 쓰이던 한자말이였겠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서 《君, 臣, 民》을 구절마다 첫머리에 나란히 쓰고있는것으로서 《3구6명》의 시가 형식을 고려할 때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는 우리 말로 독

해할 때 《6명》으로 나누어지는것만큼 《君, 臣, 民》을 각각 단음절의 한자말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향가연구》(정렬모)에서와 같이 《民》을 《아름》의 표기로 보는것은 《6명》의 형식에 비추어보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만약에 《民》을 한자말로 본다면 《君, 臣》역시 한자말의 표기로 보는것이 무난할것이다.

한편 《物生》이 과연 당시 쓰이던 한자말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선고가연구》에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새, 짐승, 벌레 등을 《衆生》이라 총칭하였음에 대하여 신라때에는 《서민, 인류》를 《物生》이라 한것은 매우 흥미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이 말은 《인생》이란 말보다 좀더 넓은 의미의 불교적속어라고 단정하였다. 즉 《物》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총칭으로 보고 《衆生》, 《人生》보다 넓은 의미로 쓴것으로 본것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物生》이라는 말이 불경에는 물론이고 그밖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당시 쓰이던 한자말이겠는가 하는것이다.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언어의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언어사적고려가 응답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레컨대 선행한 독해들에서는 《如》를 《다비, 다비, 다이, 다히, 다기》등 각기 여러가지의 표기로 주장하고있는데 그 변화의 순차성에 대한 고려가 응답 있어야 한다. 언어사적견지에서는 《다비》가 제일 선행한 형태이다.

끝으로 향가의 시가형식상특징에 따르는 《3구》를 명백히 나누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안민가》의 독해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君은 아비아
臣은 ㄷ스랴 어시아
民은 어리흔 아히고 ㅎ살디
民이 ㄷ스리 알고다 (초장)

구리스대홀 나히 고이숨 갓나히
이 홀 머거디 다스라라
이 싸홀 브리고디 어드리 가더 홀디
나라아디 디니디 알고다 (중장)

아으 君다비 臣다비 民은다비 ㅎ놀든
나라 아니 태평ㅎ니밋다 (종장)

여기서 《3구》의 초장은 나라의 계급, 계층구성을 가정의 《아비, 어시, 아히》에 비유한것이고 중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에 대하여, 종장은 임금과 신하, 백성이 다 각기 제 할바를 하게 되면 나라가 태평하게 될것임을 강조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향가 《안민가》를 현대말로 옮기게 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은 아비여
신하는 자애로운 어미여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 할지
백성이야말로 사랑하는이라고 압니다
굴대의 고임대를 고이고있는 갓난이
이들을 먹이여 다스릴것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라를 지니길 압니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아니 태평하오리까

《안민가》는 충담이라는 중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지어서 바친 노래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를 주제로 하였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그러나 《안민가》는 봉건사회의 군주와 신하, 백성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미화》하여 노래한것이라는 점을 념두에 두고 그 사상적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향가, 안민가